

GS칼텍스, 브이아이 오토모티브 지분 투자

베트남 모빌리티 사업 본격 추진

오토오아시스 프랜차이즈 越 진출
국내생산 유통유 공급·판매 확대
향후 카셰어링 등 사업 기회 모색

GS칼텍스가 베트남 세차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고 현지 시장에서의 발을 넓힌다.

GS칼텍스는 7일 베트남 세차 업체 비엠티의 모회사인 브이아이 오토모티브 서비스와 390억동(약 2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브이아이 오토모티브 서비스 지분 16.7%를 취득하게 됐다.

지분 투자 계약은 지난 6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한 계약 체결식에서 이뤄졌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GS칼텍스 경영혁신부부장 허철홍 상무, 비엠티 시 및 브이아이 오토모티브 서비스 팜 티 탄 비 대표, 페트로리맥스 사이공 웬 반 칸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비엠티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 50여개의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차 스타트업이다. 비엠티는 베트남 최초로 오토바이 전용 자동세차기를 도입했으며, 주유소 내 세차장이 거의 없는 베트남 환경에서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리맥스의 자회사인 페트로리맥스 사이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난 6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지분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GS칼텍스 경영혁신부부장 허철홍 상무, 비엠티 시 및 브이아이 오토모티브 서비스 팜 티 탄 비 대표, 페트로리맥스 사이공 웬 반 칸 회장, GS칼텍스 소매기획부부장 조광욱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맺고 20여개의 주유소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 GS칼텍스는 자회사인 GS엠비즈가 운영 중인 차량 정비 프랜차이즈 오토오아시스의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GS엠비즈는 비엠티와 함께 차량 정비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에서 530여개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쌓은 차량정비 운영 노하우와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장비, 부품, IT 인프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차량정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유통유를 직접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에 유통유 판매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GS칼텍스는 비엠티 및 페트로리맥스 사이공과 함께 베트남 주유 및 자동차 관련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유소 유외 사업과 카셰어링, 전기차 충전 등 모빌리티 사업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투자 협약처럼, 향후 다른 아세안 국가로의 사업 확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포스코, 엑슨모빌과 LNG 시장 공략

고망간강 해외 LNG 프로젝트 적용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양산개발한 고망간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업 엑슨모빌과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와 엑슨모빌은 7일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한 고망간강을 개발하고,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덕락 포스코 기술연구원장과 엑슨모빌URC의 트리스탄 애스프레이 사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망간강을 해외 LNG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에너지산업 전반에 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 엑슨모빌이 향후 발주하는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건설되는 저장탱크에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망간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육상 L



포스코 이덕락 기술연구원장과 엑슨모빌RE 비제이 스와럽 부사장이 기술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NG저장 탱크용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광양 LNG저장탱크 5호기에 최초 적용됐다.

비제이 스와럽 부사장은 “우리 사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했는데, 포스코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덕락 기술연구원장은 “강제 및 이 용기술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 등 친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도 양사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위니아대우, ‘위니아전자’ 사명 변경

종합가전회사 정체성 강화

위니아대우가 새로운 이름으로 종합가전회사 정체성을 강화한다.

위니아대우는 7일 ‘위니아전자’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내외 사업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모그룹 이름인 위니아를 드러내면서, 종합가전회사를 강조하기 위해 전자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문명은 WINIA Electronics다. 마케팅 브랜드는 해외에서 WINIA, 국내에서는 클라쎄를 이어간다.

계열사인 위니아답채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기존 대우전자, 위니아대우 시절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위니아전자

WINIA Electronics

위니아전자 CI

에 따라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새출발을 계기로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해 제품 개발과 사업 운영 등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춘 합리적인 제품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해외에서도 WINIA 브랜드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입지를 확고히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정호영 “협력사와 유기적 OLED 생태계 구축”

(LG디스플레이 사장)

LG디스플레이 2020 테크 포럼
신기술 발굴·전략적 협력 체계 강화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들과 미래 신기술 발굴 및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LG디스플레이는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0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산업혁명 가속화로 개발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의 다양화가 가져올 미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신기술 발굴 전략과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을 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

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과 강인병 부사장을 비롯해 국내 및 머크와 듀폰 등 글로벌 협력사들이 함께 했다.

/김재용 기자 juk@

아울러 최근 미래 디스플레이인 OLED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내 소재, 부품 협력사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은 이날 테크포럼에서 “OLED의 시장침투율과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는 동시에 OLED 기술이 적용 가능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협력사들과 유기적이고 치밀한 OLED 생태계를 구축해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 “우리동네 히어로 만나보세요”

의인들의 ‘인생 스토리’ 조명

LG헬로비전은 우리동네의인과미담 사례를 소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동네히어로’를 매주 금요일 헬로tv 채널 25번에서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목포 지역 치안 유지에 앞장서 온 박기철 씨를 소개한다.

우리동네히어로는 ‘평범한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콘셉트로 기획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첫 방송을 시작, 지역사회를 위

한 선행을 이어온 의인들과 미담 사례를 소개했으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종방했다.

LG헬로비전지역채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동네히어로를 다시 선보이게 됐다.

프로그램은 의인들의 ‘인생 스토리’를 깊게 조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눈 의인들의 일

상과 삶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시각도 함께 담아낸다. 의인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채널 뉴스 프로그램의 미담 소개 코너와 연계해 발굴한다. 가수 양희은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오는 9일 방송에서는 ‘목포의보안관’으로 활약하며 32년간 200여 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해온 박기철 씨를 만나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소상공인 박기철 씨는 하루 두 번씩 동네를 순찰하며 자율방범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뜻이 맞는 지역 주민들과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소형 냉장고에 비스포크 결합

이달 말 삼성 비스포크 큐브 출시
심플한 사각형태, 공간 활용도 ↑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삼성 ‘비스포크 큐브’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와인과 맥주, 화장품 등을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소형 냉장고다. 올 초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선 디자인은 공기청정기 무풍 큐브의 모듈형 콘셉트를 따왔다. 심플한 사각형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인테리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다, 필요에 따라 2개를 쌓아서 쓰는 등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

색상은 화이트·차콜·핑크·편그린·스카이블루 등 5가지로, 소비자 취향과 인테리어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단일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비스포크 큐브 전용 스탠드와 함께 설치하면 가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

/삼성전자

구처럼 연출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입맛대로 쓸 수 있는 비스포크를 더했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맥주 보관이 가능한 ‘와인 앤 비어’ ▲기능성 화장품이나 건장식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뷰티 앤 헬스’ ▲필요에 따라 와인·맥주, 건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멀티’ 등 3가지 옵션을 고를 수 있다.

/김재용 기자